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3호 [루게 제24746호] 주제 103 (2014)년 11월 29일 (토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사설

###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키자

우리의 최고준엄을 감히 헐뜯고 참다운 인권을 모독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천만군민의 적적성과 보복열기가 하늘에 닿고있다. 세기를 두고 쌓이고 쌓인 분노를 활활 산처럼 터쳐 무진막강한 백두산 총대,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로 남강도 미제를 비롯한 온갖 원수들의 숨통을 영영 끊어버리자는 것이 각자의 군민대회장들에서 터져나오는 격노의 웨침이다.

적에 대한 털끝만 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혁명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 적들과는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장구한 계급투쟁사가 새겨주는 철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얼마 전 미제수뇌들과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보여주는 축도이며 역사의 고장인 신천박물판을 찾았으며 교양반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서 발표되고 미수뇌의 초강경 대응전이 개시된 시기에 진행된 강연회는 원수들의 신천박물판에 대한 철저지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반미대결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는 데서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된다.

위대한 평양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온갖 계급적원수들을 반대하여 결렬히 싸워나갈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은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하고도 사활적인 문제이다. 계급교양을

조급이라도 늦추면 사람들이 착취받고 억압받던 지난날을 잊게 되고 적자를 용케 구별하지 못하게 되며 나중에는 피로써 정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게 된다. 계급교양을 하지 않고 계급적원칙을 버리는것은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것과 같다.

오늘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섰다. 혁명대오안에서는 세대교체가 일어나 착취와 압박을 받아오지 못하고 전쟁의 엄혹한 시험에 견뎌지지 못한 세세대들이 혁명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지금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은 우리 내부에 썩어빠진 부르주아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있다. 자본주의 독소로 우리 군대와 인민, 새세대를 사상적으로 반동시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우리의 혁명전진, 계급전진을 허물려는 것이 적들의 추구는 근본목적이다.

계급의식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한시도 늦출수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것이 바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이다. **《올해 백두산지구 혁명전진지로 향할 답사행군대오가 끝날 줄 몰랐고 대와 인민을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닌 선군조선의 참다운 혁명가들로 준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의 투쟁과업은 조급도 변하지

않았으며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우리는 드세한 사상공세, 계급교양의 편승도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을 철저히 짓밟아버림으로써 우리의 사상과 위업, 우리 제도를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현시기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최근 미국은 초보적인 주권도 속대도 없는 어중이며중이들을 규합하여 끝끝내 대조선(인권결의)라는 것을 조작해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을 가장 야수적 방법으로 학살한 인권유린의 양초인 미국이 《인권결의》를 들고나왔다는것 자체가 역사의 희비극이며 우리에 대한 로블락적인 선전포고이다.

승냥이는 절대로 양으로 변할수 없으며 독사는 열반 허슬을 벗어도 독사이다.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과 약탈로 배집을 늘리며 비대한진 미제에게 있어서 침략과 약탈은 본성이고 생존방식이다. 《인권》과 《협조》의 탈을 쓴 정치경제적압력과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력간섭 등은 미제의 방편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제야말로 침략의 원흉이고 야수의 무리이며 평화의 교살자이다.

혁명의 승배, 사회주의의 승배는 투철한 계급의식, 계급투쟁의지에 달려있다. 제국주의의 피수신 미제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계급투쟁은 끝나지 않으며 계급적근본을 새겨주고 대와 인민을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닌 선군조선의 참다운 혁명가들로 준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살던것은 해방직후에 계급교양을 잘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가르치시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 것처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서 사람들의 자주적성과 인간의 존엄, 가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신천땅의 피의 절구가 천만군민을 혁명의 반제반미투쟁으로 부르러 나간다는 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계급교양을 중시하는 당의 방침을 철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미제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수이다. 미제는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온갖 적대시정책을 다 추주해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통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맥을 추지 못했으며 군사적압력도 통하지 않았고 그 모든것이 실패하게 되자 들고나온것이 바로 《인권문제》이다.

《인권》타령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키고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최후발악의 산물이다.

우리의 주되는 적은 미제와 일본반동들, 남조선피괴들이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이 투철한 주권관을 지니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계급투쟁은 끝내지 않으며 계급적근본을 새겨주고 대와 인민을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닌 선군조선의 참다운 혁명가들로 준비시켜나가는 것이 역사의 필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선천 땅에서 수만명의 인민들이 무함하 학

마다에 꼭 차받치게 하여야 한다.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 것이 신천땅이 새겨주는 피의 교훈이다. 우리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이 감행한 야수적만행과 날로 가증되는 반공화국책동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제국주의의 취약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똑바로 인식시켜 그들이 허장성세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용감히 맞서싸워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제 군대와 인민을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주권관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제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수이다. 미제는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온갖 적대시정책을 다 추주해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통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맥을 추지 못했으며 군사적압력도 통하지 않았고 그 모든것이 실패하게 되자 들고나온것이 바로 《인권문제》이다.

《인권》타령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키고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최후발악의 산물이다.

마지막에 꼭 차받치게 하여야 한다.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 것이 신천땅이 새겨주는 피의 교훈이다. 우리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이 감행한 야수적만행과 날로 가증되는 반공화국책동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제국주의의 취약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똑바로 인식시켜 그들이 허장성세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용감히 맞서싸워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제 군대와 인민을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주권관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제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수이다. 미제는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온갖 적대시정책을 다 추주해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통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맥을 추지 못했으며 군사적압력도 통하지 않았고 그 모든것이 실패하게 되자 들고나온것이 바로 《인권문제》이다.

《인권》타령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키고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최후발악의 산물이다.

키워내는 훌륭한 학교이다. 우리 나라에는 계급교양의 정연한 체계가 서있으며 어디 가나 계급교양거점들이 꾸려져있다. 여기에 전시된 증거물들과 직판물들은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계급교양거점들에 대한 참판과 계급교양주체의 예술공헌과 영화관람, 계급적원수들의 치명리는 만행의 체험자, 목격자,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이 대상의 특성에 맞게 정상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짜고들어야 한다. 계급교양자료학습, 복수들의모임, 웅변모임, 혁명가요, 전시가요보급 등을 다양하게 조직하여 계급교양의 실효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계기와 공정이 사람들에게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확고한 계급적립장을, 불타는 열정을 심어주는 교양사업과정에

로 일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청소년들을 논리교양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밟아 버리기 위한 사상공세를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영원히 변할수 없는 계급적본성과 이 땅에서 저지른 만행을 똑똑히 알게 하여 그들이 혁명의 대, 계급투쟁의 대를 갖는 것이어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급교양의 거점들을 잘 꾸리며 강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한 비전향장기수는 《내가 원수들은 모진 교본과 악행속에서도 신념과 지조를 굽지 않고 지켜낼수 있는 것은 신천땅에서 다졌던 복수의 맹세 때문인 것이다. 혁명정신으로 표현된 혁명적근본이므로 무장하며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 천만군민이 떨쳐나 원수들의 특대형모략극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자

### 자강도, 강원도, 황해북도군민대회 진행

【평양 1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서 지지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판판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기 위한 자강도, 강원도, 황해북도군민대회가 28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은 감히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해보려고 어리석게 높아대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려는 참가자들의 결사의 각오로 세차게 뛰어받치고있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 청년학생들이 대회장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특대형모략극을 짓밟아버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담은 구호관들과 선전화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 자강도에서

자강도군민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서를 김춘집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광독한데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군관 김재선,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강계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오정삼,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최희명 등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대조선 《인권결의》라는것은 미국이 속대도 없는 어중이며중이들을 모여놓고 꾸며낸 파렴치한 정치협잡품이라는 데 대하여 날같이 깎아내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고 하면서 승리는 오늘도 매일 도 영원히 우리의것이리라는 데 대하여 강조하셨다.

우리 인민대회는 우리의 국권을 해치려고 선전포고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추호도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반공화국모략극을 벌려놓은 원수들에게 차레 질기지만 무자비한 보복타격과 최후명말뿐이라고 말하였다.

로동계급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를 틀어쥐고 미국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인권》판판권을 짓밟아버리기 위한 초강경대응전에 떨쳐나설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내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평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과정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를 하고 전향의 나날 불비속을 이기고 고향비를 생산하여 싸우는 전선에 보내주던 그 정신으로 나라의 쌀들을 가득가득 채워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 강원도에서

강원도군민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서를 박정남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광독한데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장령남장수,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천내지주관평면합기업소 지배인 김영만,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원산시 현동남대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최옥녀,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유영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남강도 미제의 사측하에 조작된 대조선 《인권결의》를 파멸시킨 정치사기극으로, 첩멸피한 판대늘음으로

준렬히 락인, 규탄하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군중전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며칠전에만도 죄없는 흑인청년을 총으로 조아죽인 백인경찰을 무죄로 선포한 최악의 인연 불모지, 인간생지옥 미국이 그 무슨 《인권》타령을 하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였다.

인민의 모든 몸과 리상이 활짝 꽃피고있다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진구들을 모욕하고 자주권과 국권을 침해해나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가장 파멸적인 보복예배를 안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분개연선시대인 강원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우리 사회의 밀부리인 군민대회를 백발으로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원수들을 때려잡는 심정으로 경공업공장들,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장 등 도안의 중요전투장들

에서 대박, 대혁신을 일으켜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준엄한 나날에도 오직 위대한 수령만 믿고 끝내 1950년대의 범동농민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인민들이 투철한 주권관을 지니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계급투쟁은 끝내지 않으며 계급적근본을 새겨주고 대와 인민을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닌 선군조선의 참다운 혁명가들로 준비시켜나가는 것이 역사의 필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선천 땅에서 수만명의 인민들이 무함하 학

####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군민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서를 박태덕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광독한데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장영리성부,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도지방건설재판관 최로동자 박훈식,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리원시 대성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황옥금,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리광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천만군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서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하면서 반공화국 《인권》판판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기 위한 초강경대응전에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평범한 농업근로자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되어 나라의 정사를 토의하고 그들의 아들딸들이 한손 내지 않고 공부하며 국가에서 훌륭한 농촌문화주체를 건설하여 무상으로 인격주는 우리 공화국과 같은 나라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말하였다.

인민군인들과 도안의 인민들은 한없이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인권》도발로 견드린 원수들을 모조리 죽여버리

릴 필적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너절할 눈으로 침략의 명분을 얻기 위해 오그람수를 쓰는 미제와 속사헌히 결판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민행성의 앞장에 서며 레성강발전소와 북부철길개건공사를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서를 목숨으로 사수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를 틀어쥐고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이인민생활상과 투쟁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서를 목숨으로 사수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를 틀어쥐고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이인민생활상과 투쟁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소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황해철원합기업소와 가무리광산, 정방산비석공장 등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원수들을 짓부시기 위한 초강경대응전에서 나라의 쌀들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은 원수들을 말로써가 아니라 총대로 짓밟아버려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민행성의 앞장에 서며 레성강발전소와 북부철길개건공사를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서를 목숨으로 사수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를 틀어쥐고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이인민생활상과 투쟁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서를 목숨으로 사수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를 틀어쥐고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이인민생활상과 투쟁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자 강 도 군 민 대 회 진 행



#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

## 중앙양묘장!

산과 들엔 가을빛이 한껏 물들어 있어도 이곳은 질투스런 나무가 있다. 온 나라를 뒤덮을 울창한 숲을 그려주며 갖가지 나무모들이 푸르싱싱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손수 솟아보신 생키호르는 나무모들...

이르는 곳마다 푸르침처럼 수림을 펼친 국토의 새 모습을 그려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절절하게 하신 말씀이 그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모에서 울려오셨던 것이다.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펼쳐나 제더미를 털고 일떠선 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명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벌리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실 구상과 결심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가을에 중앙양묘장에 또다시 세기신 거룩한 자국이 천만의 심장을 팡팡 울린다.

이제 우리 조국은 위대한 애국의 호소와 더불어 국토전면의 격동적인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2014년 11월, 잊지 못할 올해의 가을에 영원히 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강산을 세세년년 푸르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나갈 것이다.

나무가 적은 산, 나무가 없는 산들이 자취를 감추고 세상에 세 겹일 푸른 산, 푸른 들로 이 땅은 새로이 단장되리라.

산은 산마다 수종이 좋은 온갖 나무로 뒤덮이고 사시절 새들이 우짖고 뱀파가 푸르어오리라.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 조국산천에 전민의 푸른 숲을 펼치자!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태를 묻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국토가 안고있는 고난의 아픈 상처

## 애국의 발걸음따라 조국산천에 전민의 푸른 숲 펼치리

앞에 엄숙히 불려세우며 심장의 맹세를 굳게 다지게 하고있다.

과연 누가 땀땀이 말할수 있겠는가. 이 땅에 단 하나의 불모의 산이라도 있다면, 단 한평이라도 생물이 드러나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년채보라고 하겠는가.

제도 황금벌로 만들고 바다도 황금해로 만들뿐 아니라 산도 황금산으로 가꾸어 일망무제한 푸른 숲이 설레이는 국토로 강성국가의 모습을 만방에 떨치자는 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조국산천을 푸르게 하여 우리 나라를 이 세상에 들도 없는 만년대계의 산림자원을 가진 나라로 건설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지는 국토의 최후한 전선에 대한 확신과 인민의 탁월, 사회주의조선의 명답게 수림화, 원림화되고 파수원화된 조국산천의 배일에 대한 꿈으로 천만군민의 가슴이 부풀게 하고있다.

우리가 더고선 이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산 하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얼마나 깊은 사연이 깃들여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뜨겁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군님은 조국산천을 자신의 살림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거벗은 산들을 보시면 그리도 가슴이 파시었던 것이다. 현지지도의 길에 서 무성한 나무들을 보시거든 푸른 산, 푸른 들이 조종외의 우

는 애국자부대라고 높이 평가하신 애버이장군님이시었다.

한때의 나무라도 더 심고 아끼고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하시며 국토에 뿌린 땀을 더없이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이 땅의 곳곳에 설레이는 뜻깊은 나무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소년단원들과 함께 심으시고 전선시찰의 길에서 병사들과 함께 심으신 그 나무들은 푸른 숲마다에 아로새겨진 고귀한 자국을 길이 전하고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일찍이 전화의 포화속에서 심으신 장자산의 잣나무며 미국놈들은 그 어떤 폭탄으로도 우리 조국을 절대로 불태울수 없다고 하시던 푸른 숲이 자랑을 부어주신 모란봉의 나무는 내 나라의 산림의 력사, 숲의 역사야말로 절세위인의 애국의 력사임을 말하고있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중앙양묘

장도 허리머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모든 산과 들에 푸른 숲이 설레이는 모습을 위해 많은 토지를 뜯겨내어 나무모를 심도록 하고 나무 한그루를 심어주

는 현제적인 나무모생산기지로서 같은 나무를 심으실 수 있는 장군님의 업적을 천만군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유훈을 경히 받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땅의 곳곳에 푸른 산, 푸른 들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시

고 나라의 백년대계, 만년대계의 산림을 얼마나 애지중지 자애주시는가. 그에게서 정답게 쓰시든 오신 양묘장의 나무모들이 력력히 보여주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중앙양묘

장도 허리머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모든 산과 들에 푸른 숲이 설레이는 모습을 위해 많은 토지를 뜯겨내어 나무모를 심도록 하고 나무 한그루를 심어주

는 현제적인 나무모생산기지로서 같은 나무를 심으실 수 있는 장군님의 업적을 천만군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유훈을 경히 받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땅의 곳곳에 푸른 산, 푸른 들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시

고 나라의 백년대계, 만년대계의 산림을 얼마나 애지중지 자애주시는가. 그에게서 정답게 쓰시든 오신 양묘장의 나무모들이 력력히 보여주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중앙양묘

장도 허리머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모든 산과 들에 푸른 숲이 설레이는 모습을 위해 많은 토지를 뜯겨내어 나무모를 심도록 하고 나무 한그루를 심어주

는 현제적인 나무모생산기지로서 같은 나무를 심으실 수 있는 장군님의 업적을 천만군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유훈을 경히 받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땅의 곳곳에 푸른 산, 푸른 들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시

고 나라의 백년대계, 만년대계의 산림을 얼마나 애지중지 자애주시는가. 그에게서 정답게 쓰시든 오신 양묘장의 나무모들이 력력히 보여주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중앙양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푸른 숲이 조국이고 인민의 행복이며 나라의 미래임을 천만의 심장에 다시금 아로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주신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의 봉화는 로연의 불길마냥 온 나라에 타버리고있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국토전면의 력사적사건을 안아올 우리 시대의 보람찬 대승운동인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에 산악같이 떨쳐나설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끓여오 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배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값높은 삶을 푸른 숲에 묻는 뜨거운 맘으로 아름답게 수놓아갈 각오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푸른 하늘 아래 후손만대의 재부, 울창한 새 산림을 보란듯이 펼쳐놓을 것이다.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로 사회주의조선의 흥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칠 것이다.

글 본사기자 박 철

사진 본사기자 김 광 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나라의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들어 대하여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 사람들더러, 심장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이 땅은 우리모두의 삶의 터전이기에 누구나 걱정을 하였다. 하지만 과연 그 누가 하나를 성급히저 가는 조국의 산림을 두고

나리의 운명문제로 생각해본적이 있었는가.

조국산천을 자신의 살림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며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음성인 천만의 심장을 뜨겁게 격동시키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앙양묘장에 대한 현지지도는 누구나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 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전환적 계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혁신하여 10년간에 벌거숭이산들

을 모두 수림화하여야 하겠습니 다. 이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두해전 식수절에 펼쳐졌던 감동깊은 화폭을 잊지 못하고있다.

이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어 오늘은 해방직후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몸소 모란봉에 오시어 조국의 통상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식

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켜주신 력사적인 날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친히 준비하신 종이나무와 목련을 정성껏 심으시었다는 원수님.

그때는 적들의 무모한 침략전쟁에 동조했으므로 하여 나라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인민군부대에서 나무를 심으시었다.

그렇다. 우리 조국에 있어서 나무심기는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는 공화국을 아예보려고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투쟁이라고도 할수 있는것

이다.

있을수 없는 그날 밤급 파놓은듯 한 구멍이들을 보시고 식수는 자기가 구멍이를 직접 파고 심어야 식수라고 말할수 있

다, 식수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장군님애국주의이라고 하시며 몸소 한삼포 한삼 갈래씩 땅을 파계시면서 나무를 심으신 소식이 전하여졌을 때 일군들뿐이 아닌 우리 군

의 명도따라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우리들에게 또다시 경종을 울리시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 그렇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줄어든 산림자원을 놓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앙양묘장에서 하신 이 간곡한 말씀을 다시금 뼈에 새기자.

산림조성을 위한 사업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원림화한 거울에도 나라의 산림조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노래에도 있듯이 부강한 나라 위해 구슬땀 흘리며 내 조국을 수림화, 원림화하는데 정성다하는 그 마음은 내 애국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모두다 중앙양묘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새 출발을 한다는 필강과 자세에서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시며 화를 북으로 전환시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국도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은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고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재부이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나무심기는 결코 산과 들의 빈방을 메우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한평생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경애하는 원수님

의 명도따라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우리들에게 또다시 경종을 울리시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 그렇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줄어든 산림자원을 놓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앙양묘장에서 하신 이 간곡한 말씀을 다시금 뼈에 새기자.

산림조성을 위한 사업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원림화한 거울에도 나라의 산림조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노래에도 있듯이 부강한 나라 위해 구슬땀 흘리며 내 조국을 수림화, 원림화하는데 정성다하는 그 마음은 내 애국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모두다 중앙양묘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새 출발을 한다는 필강과 자세에서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

본사기자 김 준 혁

# 사회주의 애국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덮어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입니다.》

중앙양묘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일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은 온 나라를 뚫어지게 하고 있다.

푸른 숲과 애국, 온 나라를 뒤덮은 숲이 대를 두고 물려줄 재부라면 그 숲의 뿌리는 애국이다.

무성한 숲은 단순히 초목만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생물이 드러난 한치의 땅도 자기의 상처로 여기고 그것을 성실한 마음으로 적시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즐거울 뻔하게 하고 아이를 치게 하며 푸른 숲을 무성히 자라게 하는 것이다.

연제인가 일군들과 함께 잔디를 심으시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피부가 벗겨지면 인차 약

을 바르면서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깊어지고 땅이 드러나는데 대해서는 가슴아파하지 않고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다고 하니 우리는 좋은 품종의 한디를 많이 심어 온 나라를 푸르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

조국애를 한가슴에 안으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심장의 호소였다.

고난과 시련의 흔적으로 남은 가슴아픈 상처를 가시기 위해 누구나더먼저 팔을 걷고 나서신 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정원에 시험묘전을 꾸리시고 몸소 잔디를 심어주시며 수림화, 원림화한 내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하기에 그날에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을 애국으로 높게 하고있다.

조국의 초토를 피어내게 하신 일군들과 함께 잔디를 심으시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피부가 벗겨지면 인차 약

선물들이 혈전만리를 헤치며 찾았고 적만이 우락씩 울아지는 속에서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땅을 보호하는것은 산림이다.

누구나 조국땅을 자기의 살림처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며 땅을 바치는 숭고한 애국심을 간직하여야 한다.

선방들의 피가 스민 땅, 목숨바쳐 지킨 초토에 푸른 숲이 설레이는 때가 언제든 내일이 아닐지라도 살아있고 이 땅에 사는 후대들의 삶이 멋있을수 있

는것이 아니겠는가.

애국의 숲을 가을 꽃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다.

자기가 사는 집주변과 마을, 일터에서부터 우리 조국의 재부인 애국심이 시작된다.

평범한 날 이 땅에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정성껏 심어가는 사람이 참다운 애국자이다.

한방울의 땀이라도 애써 바친 것이 있어야 목숨바쳐 지키려는 영웅적인 희생정신도 자라게 된다. 애국의 의생활의 부정할수 없는 진리이다.

푸르려 설레이는 조국산천에 심어간 한그루 나무도 없이 참다운 애국을 어이 말할라의 노래를 부르면이 부를수 있도록 누구나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 주인답게 떨쳐나서야 한다.

모든 가정, 일터마다에서 크고작은 애국심들을 자라게 하고 모범산림군들이 늘어날 때 온 나라를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의 발원이라고 땀땀이 부를수 있는 거대한 애국령으로 뒤덮일 것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푸른 숲이 조국이고 인민의 행복이며 나라의 미래임을 천만의 심장에 다시금 아로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주신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의 봉화는 로연의 불길마냥 온 나라에 타버리고있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국토전면의 력사적사건을 안아올 우리 시대의 보람찬 대승운동인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에 산악같이 떨쳐나설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끓여오 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배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값높은 삶을 푸른 숲에 묻는 뜨거운 맘으로 아름답게 수놓아갈 각오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푸른 하늘 아래 후손만대의 재부, 울창한 새 산림을 보란듯이 펼쳐놓을 것이다.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로 사회주의조선의 흥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칠 것이다.

글 본사기자 박 철

사진 본사기자 김 광 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푸른 숲이 조국이고 인민의 행복이며 나라의 미래임을 천만의 심장에 다시금 아로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주신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의 봉화는 로연의 불길마냥 온 나라에 타버리고있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국토전면의 력사적사건을 안아올 우리 시대의 보람찬 대승운동인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에 산악같이 떨쳐나설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끓여오 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배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값높은 삶을 푸른 숲에 묻는 뜨거운 맘으로 아름답게 수놓아갈 각오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푸른 하늘 아래 후손만대의 재부, 울창한 새 산림을 보란듯이 펼쳐놓을 것이다.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로 사회주의조선의 흥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칠 것이다.

글 본사기자 박 철

사진 본사기자 김 광 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푸른 숲이 조국이고 인민의 행복이며 나라의 미래임을 천만의 심장에 다시금 아로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주신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의 봉화는 로연의 불길마냥 온 나라에 타버리고있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국토전면의 력사적사건을 안아올 우리 시대의 보람찬 대승운동인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에 산악같이 떨쳐나설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끓여오 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배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값높은 삶을 푸른 숲에 묻는 뜨거운 맘으로 아름답게 수놓아갈 각오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푸른 하늘 아래 후손만대의 재부, 울창한 새 산림을 보란듯이 펼쳐놓을 것이다.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로 사회주의조선의 흥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칠 것이다.

글 본사기자 박 철

사진 본사기자 김 광 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푸른 숲이 조국이고 인민의 행복이며 나라의 미래임을 천만의 심장에 다시금 아로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주신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의 봉화는 로연의 불길마냥 온 나라에 타버리고있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국토전면의 력사적사건을 안아올 우리 시대의 보람찬 대승운동인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에 산악같이 떨쳐나설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끓여오 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배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값높은 삶을 푸른 숲에 묻는 뜨거운 맘으로 아름답게 수놓아갈 각오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푸른 하늘 아래 후손만대의 재부, 울창한 새 산림을 보란듯이 펼쳐놓을 것이다.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로 사회주의조선의 흥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칠 것이다.

글 본사기자 박 철

사진 본사기자 김 광 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푸른 숲이 조국이고 인민의 행복이며 나라의 미래임을 천만의 심장에 다시금 아로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주신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의 봉화는 로연의 불길마냥 온 나라에 타버리고있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국토전면의 력사적사건을 안아올 우리 시대의 보람찬 대승운동인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에 산악같이 떨쳐나설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끓여오 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배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값높은 삶을 푸른 숲에 묻는 뜨거운 맘으로 아름답게 수놓아갈 각오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푸른 하늘 아래 후손만대의 재부, 울창한 새 산림을 보란듯이 펼쳐놓을 것이다.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로 사회주의조선의 흥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칠 것이다.

글 본사기자 박 철

사진 본사기자 김 광 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푸른 숲이 조국이고 인민의 행복이며 나라의 미래임을 천만의 심장에 다시금 아로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주신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의 봉화는 로연의 불길마냥 온 나라에 타버리고있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국토전면의 력사적사건을 안아올 우리 시대의 보람찬 대승운동인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에 산악같이 떨쳐나설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끓여오 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배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값높은 삶을 푸른 숲에 묻는 뜨거운 맘으로 아름답게 수놓아갈 각오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푸른 하늘 아래 후손만대의 재부, 울창한 새 산림을 보란듯이 펼쳐놓을 것이다.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로 사회주의조선의 흥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칠 것이다.

글 본사기자 박 철

사진 본사기자 김 광 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푸른 숲이 조국이고 인민의 행복이며 나라의 미래임을 천만의 심장에 다시금 아로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주신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의 봉화는 로연의 불길마냥 온 나라에 타버리고있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국토전면의 력사적사건을 안아올 우리 시대의 보람찬 대승운동인 사회주의애국, 모범산림군정호쟁취운동에 산악같이 떨쳐나설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끓여오 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배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값높은 삶을 푸른 숲에 묻는 뜨거운 맘으로 아름답게 수놓아갈 각오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푸른 하늘 아래 후손만대의 재부, 울창한 새 산림을 보란듯이 펼쳐놓을 것이다.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로 사회주의조선의 흥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칠 것이다.

글 본사기자 박 철

사진 본사기자 김 광 혁

#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억세게 자라난 하늘의 불사조들

뜻깊은 항공철의 이 아침 추억 깊은 한편의 노래가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땅에 나서 하늘에 사는 우리는 비행사라네 정다운 집은 여기 없어도 하늘 떠나 우리 못살리 출격할 때 명령이 내려 푸른 하늘로 높이 날올세 조국을 지키는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

... 격조높은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기려던 지난 10월을 펼쳐졌던 가슴우편한 평일이 생생히 되살아오른다.

위대한 선군명장의 출격명령이 내리자마자 백두의 칼바람소리와 같은 열적의 폭우로 천지를 진감시키며 단 몇분안에 도르비행장상공에 진입하던 하늘의 결사대들, 땅을 스칠듯 초저공으로 도르비행장상공을 통과하며 낮은 고도에서 원정작을 수행하던 추격기비행사...

저런 임무는 주지 않았는데 이미 저 비행사들무가 최고사령관 앞에서 자기가 원마해온 비행술을 뽐내고있었잖소, 얼마나 용감하오, 평시에 강도높은 비행훈련을 통하여 비행술을 부단히 높인것이 잘 알립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동행한 지휘지원원들에게 용감한 저 전투비행사들무가 높이 평가해주고 자신의 인사를 전해주려나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밑에 날로 강화되고있는 항공무력의 위력을 신장으로 걸감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주체적항공무력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 보위하며 당의 지시라면 뼉뼉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 하고야마는 인민군대를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조선의 비행사, 어느때나 그 이름은 더없이 소중하고 숭엄하게만 불리운다. 바로 어제 도당보를 펼치던 수많은 독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런 마음안고 나이런 첫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의 모습을 보고 또 보았는가.

결코 얼굴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의 훈련 모습을 몸소 보아주시고 조선너성들의 강한 의지와 굴함없는 기개를 높이 떨치었다고 하시며 이는 결코 육체적조건과 기술적 준비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참다운 조국사랑, 투철한 조국사수정신의 최대발현이며 스스로 어렵고 힘든 인생항로를 택한 숭고한 혁명정신이 하늘끝에 닿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말씀이 가슴마다에 뜨겁게 울려와서이다.

정명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을 삶의 밑거름으로 받아안으며 수형결사옹위정신, 육탄정신을 체질화한 자랑스러운 하늘의 불사조, 선군조선의 비행사들이.

지금 이 시각도 침략의 불구름이 순간도 우리의 푸른 하늘을 더럽히지 못하게 남모르게 위훈의 항로를 저 멀리 넓은 하늘에 새기어가는 우리의 미더운 비행사들.

과연 그들의 심장에 간직된 불굴의 정신, 억척불변의 신념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있는것인가.

늘어나고있는 우리 항공무력의 역사가 기록된 자록정신, 육탄정신은 어제오늘에 시작된것도, 한두사람의 특출한 위훈으로 새겨진것도 아니다.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며 적함선을 기체돌입하여 단호히 사살해버린 공화국영웅 한계만, 김정숙, 당과 수령의 전사로서의 혁명적지조를 지켜 달려드는 원수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우창화,

빛나는 전투위훈으로 우리 나라의 첫 녀성영웅비행사가 된 태선희, 적들이 《공중요새》라고 떠벌이던 B-29를 통해 화계 쇄멸공 공화국영웅 리문순과 백기락, 김지상, 안홍순, 김화룡, 강순현을 비롯한 1950년대 하늘의 결사대들...

전하의 언덕을 넘어 언덕과 언덕을 이어가며 우리의 푸른 하늘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긴 육탄영웅, 자폭용사들은 또 그 얼마이던가.

지나온 길과들을 번지느라던 우리의 항공무력이 새겨온 영웅적항로가 주체적항공무력창설이라는 그 시연으로부터 뻗어나간 억세고도 즐거운 행로였음을 잘 알수 있다.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로정에는 주체적인 항공무력건설을 위해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변불욕의 로고와 은성깊은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

일찍이 백두의 설한봉을 헤치 시던 항일전진의 나날에 벌써 조국의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자들의 항공무력, 우리 나라의 항공대를 창설하길 소망한 구상을 무르익히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해방직후 인민의 무장력을 꾸리시는 사업가운데서도 항공무력창설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정규비행대를 무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

비행사들은 우리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비행사들에게 공급할 식료품으로부터 군복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피 주시고 새 조선의 비행사들과 함께 비행장의 활주로를 걸으시면서 우리 비행사들에게 좋은 비행장을 마련해줄수만 있다면 이런 길을 얼마든지 걸겠다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속에 우리의 항공무력은 자기 발전의 넓은 길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었다.

언제인가는 비행대창설사업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는 한 일군의 과거경력을 들추며 그를 제거해버리려던 나쁜 놈들의 작간을 간파하시고 그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것을 결심하고 스스로 혁명의 길에 나선 좋은 동무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며 영광스러운 당대에 세워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수령님.

그 위대한 사랑,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여 우리 비행사들의 신념이 천백배로 다져졌고 있었고 일원단심 충정의 신념을 안고 언제나 백승의 항로, 멸적의 항로로써 주름잡을수 있었던 것이 아니던가.

저 하늘에는 길이 많아도 길 같은 오직 한길뿐 기다리는 몸이 있기애 만리라도 돌아온다네

... 그렇다. 넓고넓은 하늘에 아무리 같같이 많다고 하여도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사랑과 믿음으로 닦아주시던 항공공의 진격로, 신념의 활주로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속에 더욱 광활하게 열리게 되었고 우리 항공공의 역사는 더욱 빛나는 페이지를 기록하게 되었다.

세계는 오늘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1960년대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여러해동안 감행하며 세계의 하늘을 좁다하게 돌아치던 미제의 대항전첩 비행기《EC-121》이 우리의 평공을 불법침입하였을 때 한분은 백두명령장서 명할 무쌍한 작전전술적방직과 전투계획을 세워주시였음을.

출격명령을 받은 우리의 비행기들이 결정적인 타격으로 미제의 대항전첩비행기 《EC-121》

올해의 자랑스로운 승리는 우리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설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 오신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항공무력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활주시키고 있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태양절에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진군사에도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진군의 모든 비행사들이 참가한 이날의 역사적인 대회합은 백두의 담력과 천하무적의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내리실수 있는 대응단이였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항공무력건설사를 찬탄하며 빛내이며 우리 항공무력의 위력을 비상한 경지에 올려세운 21세기 선군승리의 영웅적인 회록이였다.

항공공의 비행기술군무성원들과 비행사가족들, 그 안해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격정까지도 속속들이 헤아려 주시고 최고사령관의 따뜻한 인사를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저하시기 전날밤에도 비행사들의 평양전첩과 관련한 은성깊은 말씀을 하시였다고, 자신계 마지막으로 걸어오신 전하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비행사들을 평양에 불러 고추해준대 대한 문제였다고 아직 그 누구도 몰

... 올해의 자랑스로운 승리는 우리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설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 오신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항공무력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활주시키고 있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설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 오신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항공무력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활주시키고 있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 올해의 자랑스로운 승리는 우리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설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 오신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항공무력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활주시키고 있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설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 오신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항공무력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활주시키고 있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설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 오신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항공무력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활주시키고 있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 올해의 자랑스로운 승리는 우리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설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 오신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항공무력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활주시키고 있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설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 오신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항공무력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활주시키고 있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설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 오신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항공무력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활주시키고 있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 올해의 자랑스로운 승리는 우리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설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 오신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항공무력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활주시키고 있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설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 오신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항공무력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활주시키고 있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설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 오신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항공무력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활주시키고 있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의 비행사들이 오직 한길, 수형결사옹위의 항로를 주름잡을수 있는것은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안길 따사로운 조국의 품, 헌신이 자아로써 아버지들이 있었기때문이다.

## 영웅의 빛과 계급적자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계급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반제교양,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교양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영웅의 반신상을 중심으로 번듯하게 꾸려진 학교정사의 햇빛 밝은 교실들마다에 차고넘치던 명랑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광경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학교복도에 꾸러진 계급교양 장소에서 진행되는 졸업반학생들의 웅변모임이였다.

봄개 삼기엔 얼굴마다에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성과 복수의 맹세가 끓어넘쳤다.

《신천국의 피의 교훈》, 《백마 무용과 우리 어머니》, 《식인종들의 인간살육》 등의 제목으로 진행된 웅변모임은 출연자들은 물론 관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지난 기간 이곳 학교에서는 리철명영웅을 비롯한 3명의 공화국영웅과 로력영웅을 배출하였다.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주목되는것은 이 사업을 학생들에게

리철명교급중학교에서

영웅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나갔었다.

두기 학교에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그 무슨 《인권결의》를 조작하여 우리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감히 걸고들며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계급교양의 날로 정하고 복수형의 모임을 웅변모임, 그림해설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급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리철명영웅이 지녔던 수형결사옹위정신과 조국보위정신, 숭고한 동지애를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영웅이 남긴 말과 그가 착한 학생들, 영웅이 심은 전나무를 통하여 실로 성성하게 진행되고있다.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남긴 글 작품들을 통해서도 투철한 반미의식, 계급의식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그들이 진행하고있는 이곳 교원들의 노력을 잘 엿볼수 있다.

교장 박봉남동무를 비롯한 교

원들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세세기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적극 벌여나가고 있는속에서도 계급교양장소를 잘 꾸려놓고 계급교양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진행되고있다.

교원들속에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계급의 믿음직한 전초병으로 키우려는 혁명가들이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는 한편 학교청년동맹, 소년단조직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밀어주고있다.

신천박물관과 중앙계급교양관을 비롯한 계급교양장점들을 통한 교양사업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영웅의 모교에서 다지는 수호자들의 분노의 웨침, 이것이 어찌 리철명교급중학교에서만 울려나오는것이랴.

이것은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만장약한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이 있는 조국방어 어머니에서나 울려나오는 복수의 선언이다. 그메아리는 미제를 파수루하는 제국주의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원수들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릴 그날까지 오늘도 레일도 이 땅우에 끊이지 울려떨어질것이다. 김 성 민

## 인권유린왕초의 가소로운 도전을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령을 지지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리기 위한 농근맹원들과 농근맹원들의 결의대회

## 제10차 전국경락학술대회 진행

제10차 전국경락학술대회는 연구자료를 내놓는 참가자들에게 증거가 수여되고 해당하는 상상이 있었다.

토론회는 당의 과학기술시론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의학의 고귀한 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말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자라는 말에서 이 전국말라이동일당의 일관된 립장이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총비서보좌관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가 참가하였다. 이어 조선로동당과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동일당사이의 친선교류에 관한 광범문이 조인되었다.

농장에서는 체육소개관에 국제체육소식과 여러 체육종목의 경기규정과 상식, 체육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대중

의료인물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락리론의 본래에 대한 해명마침, 뜸에 의한 난치성질환치료에서 이룩된 수시건의 성과와 경험들이 발표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원, 강건사리현의학대학, 평안남도인민병원 등 경락학 연구하는 의학부문의 과학자, 교원,

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표단 단장에게 부탁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동일당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정을 표시하면서 그는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동일당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일정한 조건의 밑에 일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남자 결승경기가 대성산체육단과 평양철도국체육단사이에서 벌어지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농근맹원들과 농근맹원들의 결의대회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 30일 10시부터 빙상관에서 공화국선수권대회 빙상호케이



농근맹원들과 농근맹원들의 결의대회 진행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 30일 10시부터 빙상관에서 공화국선수권대회 빙상호케이

농근맹원들과 농근맹원들의 결의대회 진행



# 조선의 총대는 자비를 모른다

원수들이 발악하고있다. 1년내내 불장난소동을 벌여놓으며 북침의 기세를 엿보던 적대세력들이 오늘은 《인권동맹》을 쳐들어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인 《정법적권》을 개시하였다. 어떻게 하나 사회주의조선을 지도우에서 없애버리자는것이다. 미제가 조종하고 가련한 하수인들이 떠밀고있는 전쟁의 무한권도가 시시각각 우리의 턱밑으로 깔리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위대한 백두령장을 모신 군대와 인민에게는 존엄한 정세를 대하는 우리 식의 판정이 있다. 원수들의 발악은 우리가 전진하고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명이기다.

우리가 모든 핵활동과 핵무기를 포기하고 굴복해나오기를 기다린다는 《전략적인내》정책에 따라 미국은 우리의외교에 대해 호기하고 제재와 압력에만 대달려왔다.

하지만 그럴수록 백백도 강화되는것은 조선의 일심단결이고 조선의 국력이다. 굼뜰고 넘쳐 세기를 주름잡아 폭풍쳐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용은 온 세계를 경탄케 하고있다.

하기에 서방의 한 인사는 북조선정부를 대결하러는 어떤 강경한 시도도 헛수고로 된다고 하면서 《북조선이 엄혹한 국제적압력을 받으면 붕괴될것이라고 생각하였는 을가미로 반짝이는 별들을 잡았다는것과 같다.》고 평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궁지에 몰리는것은 미국이다. 오죽하면 미정계에서까지 《전략적내내》로 통칭되는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을 《북을 체제강화》와 《핵보유》에 따른 《철저히 완쾌한 정책》으로 되겠다는 후행이 련일 쏟아져 나오고있었다.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정면으로 덤벼들거나 선공으로 다져진 부처비한 북복철자가 두렵고 그렇다고 패자의 비명을

울리며 현실을 그대로 감수하지니 통분하기 그지없는것이 바로 미국의 가련한 처지이다. 그래서 벌여놓은것이 도라적인 반공화국《인권》소동이다.

미국이 사대와 굴종으로 연명해가는 추종세력들을 끌어모아 유엔무대까지 어지럽히며 평판적으로 강행하는 《인권》소동은 얼간이의 자살적당담이다.

그때 문젠데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미국, 세계 도처에서 인권유린피해를 당가리마냥 쌓는 아메리카제국의 《인권》타령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귀를 기울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승산없는 놀음으로 가족이나 최친해진 기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안락으로 붕괴되고있는 대내외정책과 온갖 사회의 수라장으로 화한 자국에 대한 구급소생대책이나 세우는데 신경을 쓸것이 오바마행정부에 있어서 보다 현명해 처사로 필것이다.

사실 우리는 대결과 적대정책에 환장된 미국이 열면 머리를 식히고 늦게라도 사태의 엄중성을 리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입의 기회를 여러번 주었다. 백악관주인의 친사까지 들고 찾아온 미국고위관료들을 아랑곳해 대해준것은 얼마전지의 일이다. 지어 공화국법을 엄중히 위반하여 총형을 치르던 미국국회의 범죄죄자들에게도 인도적인 판을을 베풀어 주었다. 여기에 미국은 적대적인 악행으로 대담해나섰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의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미국의 평가가 이미 위험계선을 넘어섰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현 사태는 약육강식을 생존법칙으로 삼고있는 미제와는 말로써가 아니라 물리적대응으로 결판내야 한다는 철리를 다시금 확충해주고있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를 두고 철저히 소멸해버려야 할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삼천리강토의 그 어디에나 미제승냥이들의 괴악의 력사가 력력히 새겨져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슴가슴에는 그것이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신천박물관의 사백여머니모, 백돌어린아이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살인귀들은 우리 인민을 남피로로 가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불태워죽이고 생매장하였으며 굶겨죽이고 얼어죽어있었음뿐아니라 어린이들을 어머니몸에서 강제로 떼내어 화약창고에 가둔 다음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죽였다. 사망들의 머리에 못을 박고 사지를 찢어 학살하는 귀족같은 만행도 거러낌없이 감행하였다.

신천박물관에서 감행한 대학살만행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이며 살인마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신천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들에서 미제살인귀들과 계급적원수들이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다.

수십년세월 외세에 의해 분열의 비극과 고통을 강요당하였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미국은 첫째가는 복수국의 파적이다. 미국이 우리를 선택한 이상 우리는 무자비한 반미성정을 벌릴것이다. 우리의 존엄, 우리의 제도를 해치려는 원수들을 추호도 용서한적이 없는 조선의 총대이다.

1950년의 조선전쟁을 돌이켜보라. 우리 공화국은 창건된지 얼마 안되어 있던 그 시기 미제와 15개의 추종국가들, 남조선피괴군, 일본군주주의가 결탁한 조선적인 침략세력과 싸워 승리한 영웅조선이다.

제국주의강적을 무릎 꿇게 한 우리 인민에게 언데와 언데를 이어 섬겨바친 항복서는 두 열마리이다.

《후에블로》호사건때에 미합중국정부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에 사죄문을 보낸 미국대통령 존슨은 《미국이 생겨 력

사에 남긴 사죄문은 오직 그것 하나》라고 우는소리를 쳤었다.

조미대결전의 전적사적과정에 미제는 이렇게 머리를 수그리고 사죄문 등의 항복서들을 련속 가져다바치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침에한 대결속에서, 련장들의 강권과 전횡이 램부하는 엄혹한 현실속에서 우리의 총대는 보다 위력해졌다.

오늘날 미국을 괴수로 그 추종세력들이 벌리는 《인권》소동은 우리의 자주권과 국권에 대한 로폭적인 침략행위이다.

유엔무대에서 공화국이 마치 《인권유린지대》인것처럼 남조, 매도하여 무력간섭의 명분을 마련하자는데 《인권》소동의 궁극적목적은 이다.

사람들은 미국이 1999년에 《인권과 소수민족보호》라는 명목으로 일으킨 유고슬라비아전쟁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미국은 이 침략수법을 다시금 되풀이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어렵도 없다. 서방의 가치관이나 제국주의자들의 생뎌미는 도저히 가늠할수 없는것이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백승명치는 우리 조국의 위력이다. 단언하건대 미국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은 운명을 내건 도박과 같다.

힘의 만능론에 사로잡힌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무모한 군사적포획을 행사한다면 남을 치기만 하고 저들은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유일초대국》의 오만한 《신화》가 마가들의 가랑이처럼 훑날리게 될것이다.

조선의 총대는 자비를 모른다.

세상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참다운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의의 투쟁에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떻게 온갖 적대세력들을 징벌하고 최후의 승리가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배금희

# 온 민족의 피를 끊게 하는 미군의 성노예 범죄

최근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으로 하여 유엔무대가 어지러워지고있는 가운데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1백만명의 남조선녀성들이 미군의 성노예로 전락되었다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로세인턴네트통신 《이노스미, 루》에 의하면 미군의 남조선전투 60년의 결과 1백만명의 남조선녀성들이 미제침략자들의 성노예로 전락되었다. 1945년부터 1953년 사이에만도 35만명의 남조선녀성들이, 1962년에는 2만명 이상의 녀성들이 미군의 성노예의 희생물이 되었다. 결과 1945년부터 지금까지 남조선강점 미군에 종사한 남조선녀성들의 수는 1백만명에 달하였다.

한 남조선녀성은 자기의 피눈물나는 과거를 들어보며 《우리는 남조선-미국동맹관계의 가장 큰 희생물이었다. 내 몸은 내것이 아니라 정부와 미군의 것이었다.》라고 말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녀성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한갓 노리개로, 동물적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노예로 여기었다.

《해방》으로 돌아와 남조선에 기여는 때로부터 지금껏 저질러온 미군의 천인공노할 인권유린행위를 언제 조선민족을 격분케 하고있다.

과연 미군이 남조선에 어떤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놓았는가.

저들의 남조선전투를 합리화하는 미국의 위정자들의 때벌일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것인가를 이번 사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미국과의 관계가 밀접하게때문에 남조선이 오늘과 같이 《장성》한다고 생색을 내며 오시대는 미당국자들의 침탈된 소리에 어떤 구르내리는 오물이 숨겨져있는지 공개된 자료가 말짱히 폭로하고있다.

미국은 애초에 남조선에 평등한 관계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미군은 강행한 때로부터 남조선사람들을 련동민족으로, 저들의 강박과 지령에 따라 복종만 하는 한갓 식민지노예로 대상하였으며 녀성들을 제 마음대로 통용할수 있는 성노예로 간주하였다.

웃지 못할 희비극은 이렇게 더럽고 야만적인 강점군을 해비로 여기에 녀성들을 마구 섬겨 버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처사이다.

채일출

조선전쟁후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군의 학박보장과 자금충당을 위해 녀성들의 존엄이 유린당하고 야생동물과 같이 취급당하는것을 피할수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미군기지주변에 술한 녀성들이 거처하게 하였다. 특히 박근혜의 애비가 대통령을 할 때인 1962년에 미군사기지주변에 《특별관리부》라는것을 설치해놓고 강점군에 성봉사를 제공하는것을 합법화해놓은것이다.

《유신》독재《정권》을 비롯한 남조선의 역대 《정권》들이 이런 나쁜한 행적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때가 미군을 계속 남조선에 못박아두지 못해 전직작전통제관환상시기를 무기한 연장한데 대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박근혜도 조선녀성일진대 강점군이 우리 민족을 희롱한 사실을 두고 남조선에 계속 미군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의 사실에 접하고 눈살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면 박근혜는 분명 조선민족이기를 그만둔지 오래며 대구기 녀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극악한 반민족적인 매국노도 분명하다.

더욱이 중요소름을것은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강점미군의 인권유린만행을 막지 못하는 주체에 박근혜때가 우리 그 무슨 《인권》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북인권사수》일치요 뭐요 하며 유엔사담을 좀더하게 꾸미고있는것이다. 치졸하고 유치한 남조선피괴들의 행실에 온 겨레가 참을 뻔하고있다.

남조선에서 감행한 미군의 인권유린만행은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섹징범죄국가이며 외국주둔 미군은 강점지역 녀성들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희롱하는 강도색광들이 모인 더러운 집합체이라는것을 고발해준다.

미국은 우리에게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으며 《인권재판관》도 자처할 명분이 없다.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의 《인권》이 어떻게 될소도 몰아치는 꼴을 보면 그들의 파렴치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수 있다.

사람들은 온갖 인권범죄를 다 저지른 주체에 남의 나라 《인권》에 대해 훈시질하며 재판관노릇을 하려드는 미국을 두고 제코나 씻으라고 조소하고있다.

채일출

최근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으로 하여 유엔무대가 어지러워지고있는 가운데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1백만명의 남조선녀성들이 미군의 성노예로 전락되었다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로세인턴네트통신 《이노스미, 루》에 의하면 미군의 남조선전투 60년의 결과 1백만명의 남조선녀성들이 미제침략자들의 성노예로 전락되었다. 1945년부터 1953년 사이에만도 35만명의 남조선녀성들이, 1962년에는 2만명 이상의 녀성들이 미군의 성노예의 희생물이 되었다. 결과 1945년부터 지금까지 남조선강점 미군에 종사한 남조선녀성들의 수는 1백만명에 달하였다.

한 남조선녀성은 자기의 피눈물나는 과거를 들어보며 《우리는 남조선-미국동맹관계의 가장 큰 희생물이었다. 내 몸은 내것이 아니라 정부와 미군의 것이었다.》라고 말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녀성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한갓 노리개로, 동물적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노예로 여기었다.

《해방》으로 돌아와 남조선에 기여는 때로부터 지금껏 저질러온 미군의 천인공노할 인권유린행위를 언제 조선민족을 격분케 하고있다.

과연 미군이 남조선에 어떤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놓았는가.

저들의 남조선전투를 합리화하는 미국의 위정자들의 때벌일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것인가를 이번 사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미국과의 관계가 밀접하게때문에 남조선이 오늘과 같이 《장성》한다고 생색을 내며 오시대는 미당국자들의 침탈된 소리에 어떤 구르내리는 오물이 숨겨져있는지 공개된 자료가 말짱히 폭로하고있다.

미국은 애초에 남조선에 평등한 관계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미군은 강행한 때로부터 남조선사람들을 련동민족으로, 저들의 강박과 지령에 따라 복종만 하는 한갓 식민지노예로 대상하였으며 녀성들을 제 마음대로 통용할수 있는 성노예로 간주하였다.

웃지 못할 희비극은 이렇게 더럽고 야만적인 강점군을 해비로 여기에 녀성들을 마구 섬겨 버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처사이다.

채일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고조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24일 미국의 미주리주 사범대학이 3개월전 흑인청년을 쏘아죽인 백인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것을 계기로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또다시 일어나 삼시에 뉴욕, 로스앤젤레스 비롯한 미국전역의 170여개 도시들로 확대되고있다.

이것은 극심한 인종차별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는 인권불모지로서의 미국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산증거로 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은 법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라는나, 사법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이야 한다는나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늘어놓아 항의자들의 더 큰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당국자들은 일관 버리던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되고있으며 다만 그에 위

반되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이따금씩 발생하는듯이 조사하고있다.

하지만 그러한 개별적인 인권유린행위들이 근절되지는커녕 계속 회의를 물고 일어나 이제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도로 엄중한 지령에 이르러 오늘과 같이 전국적인 대중적 항의행동을 초래하곤 하는것은 다른나라들 미국의 인권제도 그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명백한 인종차별행위를 두고 고도 대통령이 나서서 그것을 법으로 정당화하려고 떠드것을 보면 미국의 인권기준자체가 찌그러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인권기준은 자기 동맹국들까지 포함한 국제사회의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있다.

미국이 인권유린의 포본국으로서의 제 주체도 모르고 자기의 찌그러진 인권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을 재보려는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증진해나가는데서 어떤 경우에도 철두철미 우리의 기준만을 지켜나갈것이다.

제16차 공산당, 로동당들의 국제회의가 에파도르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와 에파도르, 쿠바 등 40여개 나라의 공산당, 로동당대표단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에우데포단 단장은 조선로동당이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조선의 구체적실정과 현실에 맞는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이 반미투쟁의 앞장에서 전위적역할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모든 공산당, 로동당들이 조선로동당의 경험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에파도르, 볼리비아, 브라질, 오스트랄리아대표단 단장들을 비롯한 연설자들은 조선

# 제 16차 공산당, 로동당들의 국제회의 에 파도르에서 진행, 호소문 채택

로동당과 조선인민의 반제투쟁과 사회주의건설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면서 사회주의의 가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원칙적인 투쟁에 대한 성원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쿠바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압력은 사회주의를 발달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침공적행위라고 하면서 미제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모든 공산당, 로동당들이 반제,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서로의 지지와 협력,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공산당, 로동당들의 활동에서 국제적단결과 연대성을 우선시하며 로선과 이론에서의 견해상차이를 반제투쟁과 대립을 경계하고 극복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 추모행사와 관련한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조선인민의 행복,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진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의 요구와 조선인민의 지향, 세계 진보적인류의 념원을 반영한 과학적이며 백과전서적인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느라 커다란 사상적 노력과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셨다.

그이께서는 수평, 당, 대중의 강위력한 일심단결을 마련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경제강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다지셨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제자주의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세계 사회주의운동을 전진시키며 동

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조선의 사회주의 위업은 오늘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고있다.

제16차 공산당, 로동당들의 국제회의의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신한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면서 세계 사회주의의 위업과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할것을 모든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정당들에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당국의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파키스탄에 대한 미군의 계속되는 무인기공습만행

미군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에 대한 무인기공습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10월 30일 미군무인기가 남부파키스탄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4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였다.

결과 4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20일에도 미군무인기가 북

【조선중앙통신】

부파키스탄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한 건물을 향해 2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였다.

그러하여 5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당하였다.

미군의 계속되는 공습만행은 파키스탄인들속에서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월드마트》는 루이지아나해산물 가공회사에서 8명의 메히코로 동자들을 공장안에 가두어넣고 하루 16-24시간씩 로동을 강요하였다.

2008년에 비정부기구 《짜우던 포버터 로 렌터》가 미국의 5개 남부주들에서 일한 2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의 거의 4분의 3이 직장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밝혔다.

2011년에 《더는 목숨을 잃지 말아야 한다》단체는 보고서 《잔인성의 문화》를 발표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미국국경경비대원들의 야만적인 학대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폭로하였다.

미국주민의 1.7%를 이루는 원주민들(520만명) 특히 강제이주지역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약 70만명)의 생활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그들중 거의 3분의 1이 빈궁속에 살고있으며 강제이주지역에서의 실업률은 50% 이상이다.

인디안가정의 년간수입은 총체적으로 일반미국인가정수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주민의 96.4%가 인디안들이 사는 사우스 다코타주의 알렌지역은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서 주민의 96%가 빈궁선이하에서 연명하고있다.

인디안의 46%정도가 자기 집을 가지고있지 못하며 5명당 1명은 상수도도 전기가 없는 집에서 살고있다.

수많은 인디안들이 알콜중독, 심장질환, 결핵, 당뇨병에 걸려 심혈관계의 의료방조를 받지 못하고있다.

로동력시장들에서 사회적 보호를 제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녀성들로서 미국의 전체로동력의 4분의 1에 달한다. 그들은 목화농장과 담배농장 그리고 농산물포장장에서 장시간 고된 로동을 하고있다.

최근 10년간 미국은 국제로동기구의 어느 한 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 《민주주의협조연구소》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치선거에 대한 미국공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서 볼때 미국의 부정부패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수 없다고 간주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부정부패행위가 미국이 경제, 사회, 정치성숙한야들의 수많은 위기에 대처할수 없게 하는 원인들중의 하나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 《미국 인권보장실래보고서》(1)

로스야외무성 웹사이트에 《미국인권보장실래보고서》(2012년)가 실렸다.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의 인권보장실태는 국제공동체와 미국의 비정부기구, 대중보도수단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본 보고서에는 권위있는 국제 및 국가기구들의 검증된 정보들에 기초하여 인권분야에서 미국사회의 직면하고있는 수많은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실자료들이 정리되어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첨예한 도전들 가운데는 우선해지고있는 사회적불평등, 인종, 민족, 종교적정교에 따르는 차별, 유죄판결도 없이 감금자들을 무기한 억류하고있는 사실, 재판

의 편견, 법적공간밖에 있는 감옥들, 고문행위, 언론의 자유구속, 합법화된 부정부패행위, 공민들의 선거권제한, 인종 및 민족유별에 따르는 학대, 아동권리유린, 다른 나라들에서의 인권유린을 초래하는 미국법정의 치외법정적작용, 평화적시위자들에게 대한 무력사용 등이 속한다.

미국은 아직까지 인권분야의 많은 국제조약과 협약들에 조인하지 않고있으며 이러한 실태는 인도주의 및 인권분야에서 이 나라가 안고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할것을 요구 하고있다.

인권보장실래보고서

개나 된다.

사회학자들은 미국주민의 15-20%가 로폭적인 외국인배타주의자들에 속할수 있다고 간주하고있다.

2010년에 미국에서 유래인 백색사건이 1 200여건(뉴욕에서만도 133건)이나 등록되었다. 실례로 2011년 11월 체로 유래인정통과들이 살고

있는 구획이 정체불명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약당들은 여러대의 자동차를 불태우고 주택의 담벽과 공원의자들에 파시습의 상징과 3개의이단의 표시를 가득 그려놓았다.

《비방성상반대동맹》 연구자들에 의하면 미국의 15%정도가 급진주의적인 유래인배척정해를 가지고있다.

경찰의 과도한 힘의 사용과 인종차별

비정부기구인 경찰의 직권람용통제 및 통보계획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에만도 경찰의 직권람용건수가 5 000여건이나 등록되었다. 그러나 경찰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로 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불은 전국적으로 볼 때 훨씬 높다.

각종 성범죄(성폭행, 부화방행위, 강간 등)가 정상적인 일로 되고있다.

2010년에 618명의 경찰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것이 기록되었는데 많은 경우 미성년들이 폭행의 대상으로 되었다.

비정부기구 국제대사령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미국에서 적어도 500명이 경찰의 전기총격무기에 의해 사망하였다.

이 기구가 2008년에 발표한 보고서 《미합중국:법집행

실린 글

상을 안겨 죽게 만들었다는것이 판명되었다.

미국경찰들은 인종차별에 체제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이민정책, 인신매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40만명의 이주민과 인신매매에 걸린 사람들이 감옥에 구류되고있다. 현재 450만명의 미국어린이들이 비법적인 처지에 있다. 이것은 비법이주민이 100만명은 생에 넣지 않은것이다.

이주민들이 하루 16-24시간 장기간로동을 강요당하는 현상도 있다. 이주민들은 자주성폭행을 당하고있으며 그들속에서 사망자가 대단히 많은것이 문제로 되고있다.

《휴먼 라이츠 워치》가 얼마전에 발표한 보고서 《살길이 없다:알라바마주의 이민법》에 의하면 이 주에서 법기관들뿐 아니라 일반주민들속에서 인종차별과 이주민들에 대한 직권람용이 우선해지고있다.

2012년 8월에 발표된 이민연구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20여년을 미국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모든 재산지표들을 놓고볼때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인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2010년에 4 000만명의 이주민과 그 지식들의 23%가 빈궁선이하에서 살고있다.

《월드마트》는 루이지아나해산물 가공회사에서 8명의 메히코로 동자들을 공장안에 가두어넣고 하루 16-24시간씩 로동을 강요하였다.

2008년에 비정부기구 《짜우던 포버터 로 렌터》가 미국의 5개 남부주들에서 일한 2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의 거의 4분의 3이 직장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밝혔다.

2011년에 《더는 목숨을 잃지 말아야 한다》단체는 보고서 《잔인성의 문화》를 발표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미국국경경비대원들의 야만적인 학대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폭로하였다.

미국주민의 1.7%를 이루는 원주민들(520만명) 특히 강제이주지역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약 70만명)의 생활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그들중 거의 3분의 1이 빈궁속에 살고있으며 강제이주지역에서의 실업률은 50% 이상이다.

인디안가정의 년간수입은 총체적으로 일반미국인가정수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주민의 96.4%가 인디안들이 사는 사우스 다코타주의 알렌지역은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서 주민의 96%가 빈궁선이하에서 연명하고있다.

인디안의 46%정도가 자기 집을 가지고있지 못하며 5명당 1명은 상수도도 전기가 없는 집에서 살고있다.

수많은 인디안들이 알콜중독, 심장질환, 결핵, 당뇨병에 걸려 심혈관계의 의료방조를 받지 못하고있다.

로동력시장들에서 사회적 보호를 제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녀성들로서 미국의 전체로동력의 4분의 1에 달한다. 그들은 목화농장과 담배농장 그리고 농산물포장장에서 장시간 고된 로동을 하고있다.

최근 10년간 미국은 국제로동기구의 어느 한 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 《민주주의협조연구소》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치선거에 대한 미국공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서 볼때 미국의 부정부패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수 없다고 간주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부정부패행위가 미국이 경제, 사회, 정치성숙한야들의 수많은 위기에 대처할수 없게 하는 원인들중의 하나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월드마트》는 루이지아나해산물 가공회사에서 8명의 메히코로 동자들을 공장안에 가두어넣고 하루 16-24시간씩 로동을 강요하였다.

2008년에 비정부기구 《짜우던 포버터 로 렌터》가 미국의 5개 남부주들에서 일한 2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의 거의 4분의 3이 직장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밝혔다.

2011년에 《더는 목숨을 잃지 말아야 한다》단체는 보고서 《잔인성의 문화》를 발표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미국국경경비대원들의 야만적인 학대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폭로하였다.

미국주민의 1.7%를 이루는 원주민들(520만명) 특히 강제이주지역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약 70만명)의 생활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그들중 거의 3분의 1이 빈궁속에 살고있으며 강제이주지역에서의 실업률은 50% 이상이다.

인디안가정의 년간수입은 총체적으로 일반미국인가정수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주민의 96.4%가 인디안들이 사는 사우스 다코타주의 알렌지역은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서 주민의 96%가 빈궁선이하에서 연명하고있다.

인디안의 46%정도가 자기 집을 가지고있지 못하며 5명당 1명은 상수도도 전기가 없는 집에서 살고있다.

수많은 인디안들이 알콜중독, 심장질환, 결핵, 당뇨병에 걸려 심혈관계의 의료방조를 받지 못하고있다.

로동력시장들에서 사회적 보호를 제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녀성들로서 미국의 전체로동력의 4분의 1에 달한다. 그들은 목화농장과 담배농장 그리고 농산물포장장에서 장시간 고된 로동을 하고있다.

최근 10년간 미국은 국제로동기구의 어느 한 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 《민주주의협조연구소》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치선거에 대한 미국공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서 볼때 미국의 부정부패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수 없다고 간주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부정부패행위가 미국이 경제, 사회, 정치성숙한야들의 수많은 위기에 대처할수 없게 하는 원인들중의 하나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7-411859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행등록번호) 전 화: 교편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성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제13003호) (취급승인 제3호)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정보부 373-0712, 특고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